

金融通貨委員會 議事錄

2005년도 제20차 회의

1. 일 시 2005년 9월 2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강 문 수 위 원 (의장직무대행)
김 태 동 위 원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4. 결석위원 박 승 의 장 (총 재) <해외출장>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정 규 영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김 수 호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광 준 공보실장
박 정 룡 조사국 부국장
6. 회의경과

<의안 제33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05년 9월)>

(1) 2005년 9월 8일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제33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05년 9월)」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주관위원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05년 9월)」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음

먼저 금번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지난 3월 대폭 개편된 보고서와 동일한 체제로 작성하였음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물가안정”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수정하였음

해외투자시 수반되는 환위험 헤지비용이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관련문구를 수정·보완하였음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수출의 꾸준한 증가가 보다 중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문구를 수정하였음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충실히 기술하는 차원에서 “국내경제전망” 부분에 경제성장률 팬 차트(Fan Chart) 및 관련내용을 추가하였음

“개요” 부분 수정내용을 “본문” 부분에 반영함과 아울러 보고서 부의 이후 관련자료의 추가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도 일부 수정하였음

이밖에 의사록 공개시기 단축취지의 추가 기술 등 기타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였음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5년 9월)」 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34호 — 2005년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원활화를 위하여 2005년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005년 3/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폭 축소 등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총액한도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 소재 기업의 법인세는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한국은행의 지역별 총액한도대출 한도 배분에 있어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내용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으나 양 제도간에 지역별 차등화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5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 6천억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35호 — 2005년도 4/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4/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2005년 3/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5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 원으로 정한다.